대전지역 근대산업유산의 가치와 활용에 관한 정책적 함의

최장락*, 이상희**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건우리건축사사무소**

Implication of policy on the evaluation and utilization of modern industrial inheritance of Daejeon

Jang-Nak Choi*, Sang-Hee Lee**

Dept. of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Mokwon University*, Kunwooli Architecture Office**

요약 대전의 원도심은 인구감소·건물의 공동화 현상으로 옛 중심시가지지를 비롯하여 인근 도시공간의 쇠퇴가 현저하게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성을 살린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지만, 어떤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재생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 대전의 원도심은 일단 그 공간을 지탱해 온 산업에 대한 건축물 등, 지역의 건축적 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활용방안이 마련하지 못한 채 피해해져가는 실정이다. 이에 역사적으로 지역의 발전에 초석이 된 역사자원으로써 근대산업유산에 중요성과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알아보고, 활용사례를 통해 근대도시 대전의 발전에 근간이 되어온 산업유산에 가치와 활용을 재검토하는 의미로 근대 산업유산의 보존 및 대상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이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행정적인 노력에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 폭넓은 사람들에 일체적 노력의 필요성을 다루고자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있어서 역사적 근대산업유산을 활용을 통해 도시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체 문화공간으로 재생되도록 정책의 연구와 산업유산을 포함하는 경관적 범위의 보존, 사회단체나 사회적 기업과 연계된 보존을 전제로 한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문화재 활용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소유자간의 조정 등에 노력이 전제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주제어 : 대전, 근대산업유산, 가치평가, 활용, 정책

Abstract The Old Town of Daejeon has significantly gone down due to population decrease and vacancy of buildings. To re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develop revitalization measures with unique features, but it is also important to us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from a certain point for the regeneration of local community. The Old Town of Daejeon has a number of industrial structures and architectural heritages that give character to the spaces, but most of them are being impoverished without any use although they have universal value. This study examined the standards to evaluate the importance and value of modern industrial heritages as historical resources that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y and discussed case studies to review the value and use of industrial heritages that laid the foundation of Daejeon's development as a modern city to address the needs for urban regeneration through preservation and use of modern industrial heritages. Also, the limitations of administrative efforts were identified and the solutions were sought to address the needs to gather efforts with local government offices and the private sector.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an active and open policies to use cultural heritages through the use of modern industrial heritages for the revitalization of local communities based on the study of policies for the communication of urban users and community cultural spaces, preservation of landscapes including industrial heritages, and preservation in connection to social organizations and social companies, and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policies followed by efforts, i.e., to arbitrate the owners.

Key Words : Daejeon, Modern Industrial Heritage, Value Assessment, Use, Policies

Received 30 September 2013, Revised 22 October 2013
Accepted 20 Novem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 Sang-Hee Lee(Kunwooli Architecture Office)
Email: 44213221@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부터 시작된 산업화가 1876년 개항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시대와 문화적 환경에 차이는 있으나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반응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1차산업 위주에 산업구조는 자의와 타의에 혼재 속에서 점차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제조업과 중공업 중심에 산업으로 변화되었다. 이에따른 교통과 통신시설, 공업과 창고시설물이 들어서게 되었고 산업동력자원과 광물의 사용가치의 증가와 채취를 위한 광산 등의 시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지역적인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전통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보다는 새로운 근대도시의 형성은 산업과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같은 변화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근대산업유산의 대부분은 지난 100여년간 점차적인 산업화 도입과 이후 진행되는 산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인 기술자의 배출은 해방 이후 사회·경제적, 기술적으로 더 나은 산업시설의 생산력 향상에 이바지 하였고, 건조물의 건축적 양식과 토목구조물의 구조적 발전을 이루었다.

남아있는 다양한 산업 유산은 앞선 세대의 생활사와 연관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역사적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접하는 산업화 유산들은 도시 경관 또는 그 안에 위치하고 있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서 이 같은 대상들은 역사적 흔적임에도 점차 낙후되고, 부식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급속한 산업구조의 변경과 기술의 발전, 기술자 고용에 변화는 많은 산업유산이 사라지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필요성과 정책적 방안을 대전 원도심의 공간적 범위 내에 위치하는 근대기 형성된 산업시설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대상에 대한 가치평가와 활용을 위해 산업유산에 대해 국제적인 정의와 가치의 특징을 다룬 니즈니타길현장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근대기 형성된 대전의 도시 구성요소는 시대적·지리적 특성상 당시 산업화에 중요한 지하자원이나 중공업 시설을 기초하여 형성된 산업시설 보다는 철도교통에 의한 교통산업 중심의 도시형성과 발전에 집중했다.

그러나 1990년대 신도시 형성과 도시 기능의 이전은 결

과적으로 원도심의 인구 감소와 경제적 쇠퇴로 이어졌다.

원도심은 대전지역에 도시 산업발전의 경관을 설정하고 있으며, 철도, 도로, 교량, 기계화된 공장과 노동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1905년 이후 우리나라의 근대 산업화 도시로서 규범이 되는 공간이었다.

이 공간적 범위는 공업이나 상업시설 등 이전 시대와 다른 성격에 근대 산업화를 직접 수용하면서 형성된 공간이며, 공간의 성격은 결과적으로 산업화의 의미를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상과 시기적 특징으로 1905년 경부선 철도의 개통과 1960년 전후 재건기까지 도시 형성의 기반이 되었던 산업유산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공적활용 또는 보존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상을 제시하고 그 활용을 위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2. 근대산업유산 정의와 평가 가치

본 연구에서 근대산업유산에 활용적 가치 평가를 위해 니즈니타길 현장(The Nizhny Tagil Charter)¹⁾에서 다루어진 가치와 특성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 현장에서는 인류의 산업 활동에 있어서 인간에 가장 큰 영향 미치는 혁신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18세기말 산업혁명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의 물질적인 증거들은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연구와 보존에 관한 중요성에 인식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또한 산업 활동을 위해 지어진 건조물과 공간적 범위로서 도시와 그 경관, 건조물 안에서 사용되어진 유무형의 것들은 근본적으로 중요성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6]

2.1 근대산업유산의 정의와 분류

산업유산(Industrial Heritage)의 개념은 영국에서 산업 고고학²⁾이 성립 한 후 명칭이나 대상의 구분이 비교

1) 국제산업유산보전위원회(TICCIH)는 2003년 7월 ICOMOS 비준을 토대로 UNESCO의 승인을 받아 '산업유산 니즈니타길 현장'을 러시아 공화국 우랄에서 공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산업유산의 정의와 가치, 고증·기록 및 연구의 중요성, 법적 보호에 관한 내용, 교육과 훈련, 산업유산의 소개와 해설 등에 대한 중요성을 정리하고 있다.

2) 산업 고고학(industrial archaeology)은 주로 근대 이후의 산업 유산, 즉 산업의 발전을 보여주는 유적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http://ja.wikipedia.org> 인용)

적 명확해졌다. 18세기 중엽 시작된 산업혁명이라는 혁신적인 사건에 의해 과거와 대별되어 형성된 현상으로, 영국 등지에서 대량생산 급격한 경제적 성장, 기술·과학발전 등을 이끌며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식과 경관을 형성하며 두드러지게 나타난 제조업, 채굴업, 등의 유산에 대한 역사적 가치 인식에서 시작되었으나, 각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른 근대 산업화 양상이 확인되며 초기의 정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산업유산(Industrial Heritage)은 역사적, 기술적, 사회적이고, 건축적이거나 과학적인 가치가 되는 산업문화의 유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유적들은 건물과 기계, 작업장, 제분소, 공장과 광산, 그리고 가공과 정제를 위한 유적, 창고와 매장, 에너지의 생산, 전달과 사용을 위한 장소, 수송과 그것을 위한 모든 사회기반시설 뿐 아니라 산업과 관련한 주택, 종교예배 또는 교육 등을 위한 장소로 이루어진다.³⁾

[Fig. 1] Batter sea power station, UK in 1930 (L), today(R)

1960년대 산업고고학(Industrial Archaeology)으로 학문적 연구가 시작된 이후 1990년대 말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산업유산’의 정의에 관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 최근의 산업화에 의한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발전의 증거물.(Parmer and Nearverson, 1998)
- 역사적, 기술적, 사회적, 건축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있는 산업문화(건물, 기계, 공방, 공장 및 방아간, 탄갱 및 정제장, 창고, 저장고, 에너지 생산, 전달, 수송하는 것과 인프라시설, 그리고 주택, 종교예배, 교육 등 산업에 관련되는 사회 활동을 위해서 제공되는 장소를 포함)의 유산을 말한다. (Nizhny Tagil Charter, 2003)

3) 니즈니타길 현장(The Nizhny Tagil Charter) 인용

- 사회의 경제적 활동과 관련되어 형성된 산업의 총체적인 것.(스페인문화유산기구, 2008)
- 과거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산업과 관련한 건물과 유물을 주로 다루는 문화유산의 한 관점.(Wikipedia, 2010)
- 산업혁명 이후의 광공업 유산을 말하며 광의적으로 농업, 수산업, 상업을 포함 할 수도 있음.(Wikipedia Japan, 2009)

[Fig. 2] Yobe Bridge to give historic and cultural value and continuity in the old and new period(1912, L), and Coper refinery (1909). 'INUJIMA' art project to preserve area as art museum(R)

<Table 1> Sort and scope of modern industrial heritage

Sort	Scope
1st industry	Mine, stone pit, sand and pebble collection and extract
Manufac ture	Food, glass, fiber, brewery, iron processing factory military factory material treatment and finished goods facility
Public industry	Power production facility using coal, oil or gas, water and sewage facility like reservoir and distributing reservoir
Traffic	Road, rail and port for human and cargo transportation (bridge, milestone, port, lighthouse, canal, rail station and its subsidiary, official house, warehouse, rail and airport etc)
Informat ion	Postal delivery, electric delivery, phone, radio, TV and other electronic means: Post box, post office, telex office, telephone box, radio and TV mast, satellite broadcasting
Other	-Worker accommodation and dormitory, modern house, concentration camp and prison

개항이후 초기 한국의 근대산업유산은 제사장, 기계, 비료 등의 공장 설비 및 광산, 교량, 댐, 터널, 발전소, 철도와 관련 건축물, 하천이나 항만시설 등과 같이 당시 근

대화를 지향하는 물리적 총체를 유산으로 파악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장에서 생산, 처리 및 변환되는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광업 및 채석과 같은 원료 추출을 위한 시설과 자재, 물, 하수도, 전기와 같은 발전 시설 및 설비 등의 공공시설이 산업유산에 포함된다.

[Fig. 3] Old Deoksan Brewery registered as cultural property(1930)

또한 산업혁명에 따른 원동기의 발전은 근대적 교통수단의 제작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철도와 항구, 도로 등 사람과 1차산업 및 광공업으로 생산된 원료 및 제조업에 의한 완제품의 운송을 위해 필수적인 교통 산업과 관련 시설들이 건설되었다.

우리나라의 근대 산업화에 따른 물리적 유산은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이러한 산업유산을 분류·정리해 보면 위의 <Table 1> 4)과 같다.

2.2 근대산업유산 평가가치의 종류

니즈니타길 헌장(The Nizhny Tagil Charter) [6]에서 다루어지는 산업유산의 가치는 상당한 역사적 결과를 가져왔거나 가져 오고 있는 활동들의 증거들으로써 산업유산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특별한 유적에 대한 특이성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증거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 때문이다. 또한 보통 삶의 기록에 일부 부분으로서 사회적 가치가 되며, 그것은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문화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Table 2> Value and assessment factors extracted from Niznitagil Convention

Value	Assessment factors
Historic	Historic process, result and activity evidence
Social	Life record of member, local identity decision
Technical	Production,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history
Aesthetic	Quality of building, design and plan
Cultural	Memory and custom record on relics, urban structure, part, machinery and landscape
Landscape	Specific process, landscape preservation and uniqueness

산업유산은 제조업, 공학, 건설의 역사에서의 기술적, 과학적 가치를 가지며, 또한 산업유산의 건축, 디자인이나 계획은 상당한 미학적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가치들은 산업유적 그 자체에, 그 산업의 조직에, 구성요소에, 기계와 설치에, 산업경관에, 생산된 문서에 또한 그 산업에 포함된 인간의 기억과 관습에 묻어있는 무형의 기록에 내제되어 있다. 특정한 산업의 초기 생산 과정을 보존하고 있는 유물들은 지역적 또는 경관적인 특정한 가치와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3][4]

3. 대전 근대산업유산의 현황과 평가

경부선철도의 개통부터 한국전쟁 이후 재건시기까지 대전지역의 근대 산업화 과정은 오늘의 “근대도시 대전”의 형성과 지역 기간산업의 근간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초기 근대사를 통해 연구되어지는 물리적 유산들은 산업유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근대문화유산으로 통칭되어 사용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유산의 용어적 사용 및 근대산업유산에 보존과 활용에 필요성을 다루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전에 역사는 도시의 경관과 내재된 물리적 요소의 형성 시점에 따라 근대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징을 갖는다. 지역의 현존하는 근대산업유산에 대해서는 1980년대⁵⁾의 대전지역 근대건축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여 그 존재와 가치에 대해 조금씩 인식되게 되었다.

4) 장호수, 문화재분류체계 시론, 인문학콘텐츠학회, 2004, p83.
박재민·성종상, 「산업유산개념의 변천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pp.69-70

5) 김정동, 「대전의 근현대건축 - 그 목록과 유형을 중심으로」, 98 대전도시건축연구재단 연구원 정기심포지움, 1998

[Fig. 4] Daejeon's urban establishment period in 1910s(Reprocessing of Daejeon map in late 1910s by author)

[Fig. 5] Landscape of Daejeon station and Daejeon filature factory. It has landscape, social, technical value in the history of Daejeon (Source: Daejeon modern archives forum)

이를 계기로 그 보존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또한 도시 형성 초기 철도산업과 그 영향으로 형성된 각종 산업시설 및 상업, 주거시설 등 대부분의 근대문화유산은 근대 산업화의 영향에서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지역에 분포하는 근대산업유산은 객관적인 주목도가 높아, 그 지역에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고하고 또 자원으로써 활용하기 위한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1 대전지역 근대산업유산의 현황

대전지역에 현존하는 근대산업유산 중 등록문화재 지정되었거나, 근대유산적 가치를 갖는 대상, 또는 별도로 근대산업유산으로 정의되어 분류되지 않지만, 도시 형성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맥락의 근간이 되었던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당시 제작된 시가지도와 「근대문화유산조

사보고서」(대전광역시, 2010)에 나타난 대상을 Table 1에서 분류표를 토대로 시기적 범위 내에서 형성된 산업유산을 추출하였다.

<Table 3> Modern industrial heritages in original Daejeon

Sort	Scope
1st industry	-
Manufac-ture	Sinkwangyeolgi (Old. Wondong soy sauce factory, during Japanese occupation period) Gumbokju Daejeon office (Old lumber factory, 1956)
Public industry	Hanjeon Daejeon Office(1930), Daedongcheon(1927), Seochon leisure park(1934), Panam distributing reservoir(1931), Daeheung distributing reservoir(1957), Sanseong Pumping station(1950)
Traffic	Daejeon station(1905), Railway Corp. Daejeon office distribution warehouse No.3(1956)
Informat-ion	Dongyangcheoksil Company Daejeon branch(1922, Old Daejeon Telephone Office)
Other	Soje-dong rail office public house (1920s), Daedongcheon(1927), Daejeon prison well(1919), Daejeon prison watch tower(1939)

[Fig. 6] Main facilities in map of Daejeon in 1928 (re-processing)

[Fig. 6]은 1928년 발행된 대전지도를 토대로 주요시설물 현황(● 표기)을 나타낸 것으로 대전역과 대전천을

중심으로 철도관련 시설물과 철도관사, 제사 및 비료공장, 전기, 통신 및 교육시설과 금융·상업 시설이 주요 시설물로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Fig. 7] Old Daejeon power plant used for KEPCO lab (Source: Daejeon modern archives forum)

이후 1932년 충남도청의 이전은 도시생성과 더불어 형성된 산업시설 중심의 공간구성에서 행정중심의 공간구조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이 중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로는 한전대전보급소(제99호, 2004), 철도청대전지역사무소보급창고제3호(제168호, 2005), 옛 동양척식회사대전지점(제98호, 2004) 등 총3건이며, 동산으로 분류되는 인쇄전신기(제434호, 2009)가 있다.

[Fig. 8] Secheon leisure park(L) and Old Dongyangcheoksik Company Daejeon branch (R)(Source: Daejeon modern archives forum)

[Fig. 9] Daejeon prison watch tower (Source: Mokwon University Modern architecture Lab)

이들은 초기 대전이 형성되면서 한국전쟁 직후 전후 재건기에 지역의 산업시설로 현재까지 남아 그 가치를 인정받은 등록문화재이다. 또한 앞의 보고서에 조사된 산업시설의 분류에서 보면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전 주요 교량 및 터널은 철도의 통과 지역인 동구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있다.

[Fig. 10] Status of distribution and tunnel as modern industrial facility of Daejeon (Source: 「2010 Modern heritage survey report」 re-processing)

[Fig. 10]에서와 같이 동구지역의 경우 1900년대 초 경부선철도가 대전지역을 가로지르면서 철로 또는 가도교 역할의 교량과 철로 통과를 위한 터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연도는 대부분 1960년대 이전에 건립되었다.⁶⁾

3.2 지역 근대산업유산의 가치와 활용

외국의 경우 산업화 시대의 시설이나 경관을 문화유산적 가치로 평가하고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보편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대전은 일제강점기 이후 지역의 근대화를 지탱 해 온 이른바 근대산업유산의 분포로 보면 대전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현재까지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 대전역은 오늘날까지 형태와 공간 활용의 변형이 있어 왔지만, 역사성과 장소성은 시대적 변화를 거치면서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공간임을 부정할 수 없다.

6)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교량의 위치는 당초 위치에 현존하고 있으나 KTX개통 및 선로 개량공사, 도로확장공사 등으로 구조물의 철거 및 변형이 진행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교량 및 터널의 산업유산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Fig. 11] Daejeon station and Bachelor officers' house during Japanese occupation period

그러나 신도시로 주요 도시 기능이 이전되고 기존 도심이 경제적 침체와 공동화에 이르렀을 때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제반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마감하고 멸실되거나 훼손되어지고 있다.

[Fig. 12] Use of Daejeon station distribution warehouse for music concert and exhibition

대전의 도시 공간과 구성요소들은 근대기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전형이며, 산업화 시스템으로 변화해 온 역사라고 생각하면, 가능한 한 원도심을 비롯한 도시의 발전사는 내재된 역사적 구성요소와 변화 요소들의 전모를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보존하여 지역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철길이 나면서 대전에 늘렸던 회덕은 이제 고속의 길을 타고 대전을 누르는 도시로 발돋움 하려한다. 길이 가르는 도시의 성쇠, 길은 참으로 도시의 숨길인 것이다. 영남과 호남이 갈려가는 길목, 소백과 노령의 푸르른 산봉우리들을 지켜보며 대전인터체인지를 빙거나면 바로 교각 35m의 대전육교가 당겨온다. 아치형 교각이 무지개처럼

럼 걸려 길이 205m의 유선형 다리를 받쳤다. 저아래 다리 밑을 아스라하게 지나가는 마차(馬車)들, 여기서부터가 난공구(難工區) 대전, 황간, 왜관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후략)”(동아일보 1970년 7월 1일자)⁷⁾

[Fig. 13] Feature of now and then of Daejeon Overbridge with technical value and landscape value(Source: Donga Ilbo (1970.07.01).)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산업유산으로서 가치를 갖는 대상을 예비문화재⁸⁾나 문화재 등록 등 현재를 보존하고 더 이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보수에 대한 대책과 방법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도 그 중요도에 따라 앞으로 이전 복원 및 기록화 작업, 원형보존을 전제한 활용방안의 강구 등 현재의 보존과는 다른 방법도 고려해야하며, 근대기 형성된 산업유산의 주변 환경이나 관련시설 등 또한 이미지 자료와 사료 등 아카이빙을 통한 검증과 연구를 통해 지역의 근대 산업사에 증거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옛 도심을 삶의 터전으로 시작했던 앞선 세대에 삶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내재하고 있으며, 그 것은 지역 정체성을 기반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식하고 동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대전 원도심에 위치한 근대산업유산의 보존과 재사용은 최근 10여년 사이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근대기 구축된 산업유산의 자산과 역사·문화적 활용 가치가 높아지는 추세에 비교하면 몇 가지 주요

7) 대전육교 건설 당시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 대전의 도시적 특징과 당시 경부고속도로와 육교가 건설되면서 대전육교의 건축적 특징·대전의 공간적 확장의 이해를 돕는다

8) 현대 한국인의 삶을 대표하며, 보존가치가 있는 근현대 유물을 예비문화재로 지정하는 제도

문제점과 추후 정책적 추진 방안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활용 방안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 남아있는 산업유산과 그와 연관된 경관적 범위의 설정 및 보존 장소의 재고 설정이 미흡하여, 도시 재개발에 따른 근대 산업유산의 멸실이나 훼손되어 방치되거나, 공적 자산으로 인식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대상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체계적인 조사와 사료 확보, 예산지원과 일관된 관리 메뉴얼의 부족으로 보존 및 재생이나 활용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했다. 따라서 행정체제의 강화를 통해서 근대산업유산의 평가와 보존 및 활용 방안은 원도심 활성화 관련 정책의 프레임 안에서 공유되어야 하며, 현재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행정적 추진 부서의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해당 부서가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과의 조정을 통해 근대 산업유산의 역사적 자원 활용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목표로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와 제휴를 도모하면서,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자원 봉사 활동 등 시민이 근대산업유산과의 이해관계를 늘려가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따라서 사회적 기업과 같은 조직의 설치와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지역 근대산업유산에 대한 연구조사는 현황 파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대상에 대한 가치 평가와 활용은 주로 개별 산업 건물의 보존과 소유자 위주에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어, 원도심이 갖는 역사적 환경과 풍경의 전체적인 경관적 기반을 고려한 접근 방식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문화재적 가치와 특성을 내재한 지역을 설정하고 활용적인 측면에서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도시계획에 자원으로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변용 가능한 문화유산으로 보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셋째, 보존·활용을 위한 통합관리 방안을 구축하여야 한다. 앞으로 등록문화재 혹은 문화재로 등록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을 우선 선정하여 근대산업유산으로 가치가 인정되는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보존·활용·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으로서 시설을 일괄적으로 집약해, 지자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조직의 설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기업들을 육성하고 문화유산의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통해 운영관리 비용의 충당 등 보존을 전제로 한 활용

과 관리 방안을 검토한다.

넷째, 보존·관리를 위한 대상의 소유자와 조정이다. 대전의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근대산업유산은 민간 소유의 대부분으로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각각이 독특한 형태나 시대상을 반영하는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나, 초기 도시의 거점 시설로 대전역과 철도산업시설과 기업이나 민간 소유의 시설들은 노후화가 현저하고, 보존에 관해서는 긴급성이 높은 것도 있어 전문가 또는 시민사회단체를 활용한 보존이나 활용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유산에 대한 대응방안의 고민은 분명 차세대에 문화유산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공유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향후 보존·유지관리·활용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진행 중인 원도심 활성화 정책은 유형의 역사 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정체성과 삶에 흔적들을 경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근대기 지역 산업화의 변천 과정이 만들어 놓은 근대산업유산의 그 가치 인식과 활용에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또한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문화적 활동의 원동력으로 활용에 필요성을 제기하여 추후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근대도시 대전이 추구하는 과학도시와 문화도시로 발전을 위해, 근대산업화의 상징적 장소와 지역 정체성을 특징지을 수 있도록 지역민에게 역사·문화적 공동체 의식의 함양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활용 가능한 산업유산을 보존·정비하고 가치와 매력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지역 근대사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가 높아지며, 이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애착과 공동체 의식이 형성 된다. 또한 특정 기업 소유의 근대산업유산을 지역민에게 공개하고 활용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 또는 민간단체와 지자체 및 관련 기관 간의 연계 의식이 높아져 지원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

원도심의 이미지의 향상에 의한 공동화 현상의 방지와 지역민의 정착요구가 강해질 수 있으며, 이는 근대산업유산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내재한 가로경관 중심으로

지역커뮤니티 공간의 마련과 강화로 이어질수 있다.

전통적 이미지 보다 근대적 이미지가 강한 원도심 지역은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상업유통과 식문화 등 근대기 형성된 문화를 갖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 활용할 경우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대전지역의 근대산업유산 가치는 과학도시를 지향하는 지역 산업구조와 도시의 기능과 공간 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그 역사적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근대기 대전의 도시 생성은 기화와 도전의 도시였으며 이와 함께 형성된 근대산업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지역사회가 추구하는 과학도시로의 역사적 정체성을 갖는 다고 볼 수 있다.

아직은 대상의 가치 이해와 활용을 위한 방법에 있어 합리적이고 총체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지만, 대전 원도심이 갖는 근대산업유산에 대한 가치평가와 보존, 그리고 활용을 위한 재생적 전략을 향상시켜 현 상태에서 다양한 산업유산의 라이프사이클을 연장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Chung Dong Kim, First Page, National Register of Korea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ure, Vol.46, No.5, pp 8-9, 2002.
- [2] Sung-jo Kim·Young-Tae Kim, A Set of the Criteria of Conservation value of Modern Architectural and Cultural Heritages,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Regional Association, Vol. No.1, pp7-10, 2011.
- [3] Jae-Myeong Park·Jong-Sang Sang, A Study on the Definition Changing of Industrial Heritage. Humanities Content Society, Korea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History, Vol.21 No.1, pp65-81, 2012.
- [4] Dong-Jin Kang, An Analysis of Resource System for Industrial Heritage based on Industrial Typology, Korea Planners Association, Vol.44 No.3, pp173-191, 2009.

- [5] Dong-Jin Kang, Urban Regeneration Methodology through Reuse of Industrial Heritage,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Vol.11 No.1, pp157-178, 2010.
- [5] ICOMOS, The World Heritage list: Filling the gaos-an action plan for the future, Paris, 2004.
- [6] The Nizhny Tagil Charter for the Industrial Heritage, 2003
- [7] DOI: <http://www.daejeon.go.kr/>
- [8] DOI: <http://kostat.go.kr>
- [9] DOI: <http://www.nps.gov>
- [10] DOI: <http://www.unesco.or.kr>
- [11] DOI: <http://www.cha.go.kr/>

최 장 락(Choi, Jang Nak)

- 1983년 2월 : 명지대학교 토목공학과(공학사)
- 2007년 2월 : 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공학석사)
- 2010년 3월 ~ 현재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문화재, 토목유산

· E-Mail : high2@korea.kpolicy.or.kr

이 상 희(Lee, Sang Hee)

- 1999년 2월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공학사)
- 2002년 2월 :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건축공학과(공학석사)
- 2013년 2월 : 목원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 관심분야 : 문화재, 근대건축

· E-Mail : 44213221@hanmail.net